

두산아트랩 공연 2026 ④

## 컨컨 CONTCNN

# 곡예사훈련

25(목)~27(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쇼케이스 70분

\*아티스트 토크 27(토) 3시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bang.com/dy/7508](http://www.podbbang.com/dy/7508)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창작노트

#### -김준봉(작·연출·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봉입니다. 저는 서커스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의 연출이기도 합니다.

이 공연은 제가 2016년 처음 프랑스의 거리예술 축제에서 다양한 컨템포러리 서커스 공연을 한꺼번에 접하게 되었을 당시, 제 머릿속을 맴돌던 조각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연극과 서커스가 섞인 퍼포머 자신의 얘기를 서커스 기예와 함께 하는 공연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저를 서커스 하는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때마침 두산아트랩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이 작업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처음에 저는 연극이 좋았고, 단순히 '몸을 잘 쓰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서커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엇이든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던 20대 배우였던 저는 간절히 어딘가에 쓰임을 받고 싶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우연히 접한 서커스는 각자의 다른 몸과 다른 역할, 다른 개성이 존중받는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커스가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나이 들어감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일 없음과 돈 없음, 부상과 슬럼프, 경쟁과 도태의 시간 속에서 어느덧 10년을 서커스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미래가 두렵지만, 그래도 마냥 혼자일 것만 같던 처음의 시간들을 지나 현재는 좋은 사람들과 **하하호호** 즐겁게

작업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출연하는 권해원, 박상현 퍼포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창작자들이기도 합니다. 컨컨 말고도 64줄, 코드세시의 작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주소 😊 @decontconn @64\_j\_official @codesassy

### 창작 과정

<곡예사훈련>은 2025년 8월 19일 줌 미팅을 기점으로 퍼포머들과 공연학자 손옥주 님과 연습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인터뷰 질문지를 만드는 일이었고, 이번 작품의 드라마터그이자 모더레이터로 출연해 주신 손옥주 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는 1~2주에 한 번씩 느슨하게 만나며 서커스 하며 힘든 얘기도 하고, 신체 훈련도 하고, 인터뷰 촬영도 해보았습니다. 11월 말부터는 1주에 3~4 번 만나며 본격적인 인터뷰와 훈련을 진행하였고 이런 연습 과정을 통해서 대본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대사 중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연습이나 인터뷰 시 함께 나눈 대화를 토대로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퍼포머들의 애드리브도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극작 과정 이후에 이야기에 따른 움직임 및 기예 장면도 구성하였습니다. 12월 말부터는 정은재님이 조연출로 합류하여 출연을 겸하는 연출로서 병행하기 어려운 역할들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 기예의 구성

극 중 한국의 컨템포러리 서커스를 다루는 본 공연은 에어리얼 로프와 실크, 슬랙 와이어, 씨어 훨, 핸드 스탠드, 저글링 등의 기예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세계 정상의 기예자들의 완벽하고 환상적인 기예를 보여주고자 하는 공연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기예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서 사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커스 퍼포머가 기예를 실패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밀하기도 불안하기도 하고 가끔은 귀엽기도 한 다양한 서커스 기예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키워드

극 중 다양한 키워드들이 자막을 통해 제시됩니다. 몸풀기, 컨디셔닝, 기예와 같은 훈련의 언어들뿐만 아니라 위험, 환경, 미래와 같은 예술가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대화의 주제들 또한 다뤄집니다.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들은 서커스 퍼포머들의 예술가 개인의 삶과 예술가로서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서커스 퍼포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질문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공연 속 퍼포머들이 바라보는 서커스 씬의 환경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여전히 논리적 맹점이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예술가로서 느끼는 솔직한 의견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한국의 컨템포러리 서커스 씬에도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출연 김준봉

드라마터그모더레이터 손옥주  
출연 권해원 김준봉 박상현 손옥주

음악 신세빈

영상 장주희

영상오퍼레이터 박하은

조명 김지우

조명크루 김현 나홍선 이건혁 이한별 정찬영  
조연출 정은재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라임



[두산아트랩 공연 2027 공모 안내]

일정 2026.5.4~2026.5.28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